

2020년 2월



문재인정부 실정 보고서

제 3 권

국방 실책을 반성하라!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국방 실책을 반성하라!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 함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 평온하고 걱정 없으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안보(security)란 라틴어의 'securus' 즉, 근심, 걱정 없다는 말과 'securitas' 걱정없는 상태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평화(Peace)란 말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제정치학자들은 대개 10년~15년간 특정 지역이 이러한 충돌없이 안정되게 관리될 때 이를 '평화'가 왔다고 정의한다. 이렇듯이 국가안보란 국민의 걱정과 우려함이 없어야 하고 평화라는 것은 선언적인 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가?

과연 우리가 문대통령이 말하듯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가?

다음의 여러 예는 현 문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민들을 연일 불안하게 만든 '국방에서의 실정'을 지적하는 글이다. 이를 보며 우리는 현 정부의 변화와 각성을 촉구한다.

문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선거를 통해 2017년 5월 10일 당선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한 상태였다. 북한은 한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연일 집회를 선동하였고, 16년 만에 난수표를 이용하여 국내 지하조직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을 재개하였다. 이미 북한은 난수표가 아니라도 인터넷과 같은 최신 전자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지령을 하달하고 보고받는 체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난수표 송신 방송을 시작한 것은 한국 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남남갈등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지하조직의 준동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국은 2016년 7월 우리가 사드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전매체를 통하여 사드의 철수를 요구하고 심지어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물리적인

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의 높은 점령

278	신수면	262	안대(원)	745	문	735	경
279	사	266	진	746	문	736	경
280	사	268	안대(원)	747	유리(원)	737	경
281	사	269	안대(원)	748	유리(원)	738	경
282	사	270	안대(원)	749	유리(원)	739	경
283	사	271	안대(원)	750	유리(원)	740	경
284	사	272	안대(원)	751	유리(원)	741	경
285	사	273	안대(원)	752	유리(원)	742	경
286	사	274	안대(원)	753	유리(원)	743	경
287	사	275	안대(원)	754	유리(원)	744	경
288	사	276	안대(원)	755	유리(원)	745	경
289	사	277	안대(원)	756	유리(원)	746	경
290	사	278	안대(원)	757	유리(원)	747	경
291	사	279	안대(원)	758	유리(원)	748	경
292	사	280	안대(원)	759	유리(원)	749	경
293	사	281	안대(원)	760	유리(원)	750	경
294	사	282	안대(원)	761	유리(원)	751	경
295	사	283	안대(원)	762	유리(원)	752	경
296	사	284	안대(원)	763	유리(원)	753	경
297	사	285	안대(원)	764	유리(원)	754	경
298	사	286	안대(원)	765	유리(원)	755	경
299	사	287	안대(원)	766	유리(원)	756	경
300	사	288	안대(원)	767	유리(원)	757	경
301	사	289	안대(원)	768	유리(원)	758	경
302	사	290	안대(원)	769	유리(원)	759	경
303	사	291	안대(원)	770	유리(원)	760	경
304	사	292	안대(원)	771	유리(원)	761	경
305	사	293	안대(원)	772	유리(원)	762	경
306	사	294	안대(원)	773	유리(원)	763	경
307	사	295	안대(원)	774	유리(원)	764	경
308	사	296	안대(원)	775	유리(원)	765	경
309	사	297	안대(원)	776	유리(원)	766	경
310	사	298	안대(원)	777	유리(원)	767	경
311	사	299	안대(원)	778	유리(원)	768	경
312	사	300	안대(원)	779	유리(원)	769	경
313	사	301	안대(원)	780	유리(원)	770	경
314	사	302	안대(원)	781	유리(원)	771	경
315	사	303	안대(원)	782	유리(원)	772	경
316	사	304	안대(원)	783	유리(원)	773	경
317	사	305	안대(원)	784	유리(원)	774	경
318	사	306	안대(원)	785	유리(원)	775	경
319	사	307	안대(원)	786	유리(원)	776	경
320	사	308	안대(원)	787	유리(원)	777	경
321	사	309	안대(원)	788	유리(원)	778	경
322	사	310	안대(원)	789	유리(원)	779	경
323	사	311	안대(원)	790	유리(원)	780	경
324	사	312	안대(원)	791	유리(원)	781	경
325	사	313	안대(원)	792	유리(원)	782	경
326	사	314	안대(원)	793	유리(원)	783	경
327	사	315	안대(원)	794	유리(원)	784	경
328	사	316	안대(원)	795	유리(원)	785	경
329	사	317	안대(원)	796	유리(원)	786	경
330	사	318	안대(원)	797	유리(원)	787	경
331	사	319	안대(원)	798	유리(원)	788	경
332	사	320	안대(원)	799	유리(원)	789	경
333	사	321	안대(원)	800	유리(원)	790	경
334	사	322	안대(원)	801	유리(원)	791	경
335	사	323	안대(원)	802	유리(원)	792	경
336	사	324	안대(원)	803	유리(원)	793	경
337	사	325	안대(원)	804	유리(원)	794	경
338	사	326	안대(원)	805	유리(원)	795	경
339	사	327	안대(원)	806	유리(원)	796	경
340	사	328	안대(원)	807	유리(원)	797	경
341	사	329	안대(원)	808	유리(원)	798	경
342	사	330	안대(원)	809	유리(원)	799	경
343	사	331	안대(원)	810	유리(원)	800	경
344	사	332	안대(원)	811	유리(원)	801	경
345	사	333	안대(원)	812	유리(원)	802	경
346	사	334	안대(원)	813	유리(원)	803	경
347	사	335	안대(원)	814	유리(원)	804	경
348	사	336	안대(원)	815	유리(원)	805	경
349	사	337	안대(원)	816	유리(원)	806	경
350	사	338	안대(원)	817	유리(원)	807	경
351	사	339	안대(원)	818	유리(원)	808	경
352	사	340	안대(원)	819	유리(원)	809	경
353	사	341	안대(원)	820	유리(원)	810	경
354	사	342	안대(원)	821	유리(원)	811	경
355	사	343	안대(원)	822	유리(원)	812	경
356	사	344	안대(원)	823	유리(원)	813	경
357	사	345	안대(원)	824	유리(원)	814	경
358	사	346	안대(원)	825	유리(원)	815	경
359	사	347	안대(원)	826	유리(원)	816	경
360	사	348	안대(원)	827	유리(원)	817	경
361	사	349	안대(원)	828	유리(원)	818	경
362	사	350	안대(원)	829	유리(원)	819	경
363	사	351	안대(원)	830	유리(원)	820	경
364	사	352	안대(원)	831	유리(원)	821	경
365	사	353	안대(원)	832	유리(원)	822	경
366	사	354	안대(원)	833	유리(원)	823	경
367	사	355	안대(원)	834	유리(원)	824	경
368	사	356	안대(원)	835	유리(원)	825	경
369	사	357	안대(원)	836	유리(원)	826	경
370	사	358	안대(원)	837	유리(원)	827	경
371	사	359	안대(원)	838	유리(원)	828	경
372	사	360	안대(원)	839	유리(원)	829	경
373	사	361	안대(원)	840	유리(원)	830	경
374	사	362	안대(원)	841	유리(원)	831	경
375	사	363	안대(원)	842	유리(원)	832	경
376	사	364	안대(원)	843	유리(원)	833	경
377	사	365	안대(원)	844	유리(원)	834	경
378	사	366	안대(원)	845	유리(원)	835	경
379	사	367	안대(원)	846	유리(원)	836	경
380	사	368	안대(원)	847	유리(원)	837	경
381	사	369	안대(원)	848	유리(원)	838	경
382	사	370	안대(원)	849	유리(원)	839	경
383	사	371	안대(원)	850	유리(원)	840	경
384	사	372	안대(원)	851	유리(원)	841	경
385	사	373	안대(원)	852	유리(원)	842	경
386	사	374	안대(원)	853	유리(원)	843	경
387	사	375	안대(원)	854	유리(원)	844	경
388	사	376	안대(원)	855	유리(원)	845	경
389	사	377	안대(원)	856	유리(원)	846	경
390	사	378	안대(원)	857	유리(원)	847	경
391	사	379	안대(원)	858	유리(원)	848	경
392	사	380	안대(원)	859	유리(원)	849	경
393	사	381	안대(원)	860	유리(원)	850	경
394	사	382	안대(원)	861	유리(원)	851	경
395	사	383	안대(원)	862	유리(원)	852	경
396	사	384	안대(원)	863	유리(원)	853	경
397	사	385	안대(원)	864	유리(원)	854	경
398	사	386	안대(원)	865	유리(원)	855	경
399	사	387	안대(원)	866	유리(원)	856	경
400	사	388	안대(원)	867	유리(원)	857	경
401	사	389	안대(원)	868	유리(원)	858	경
402	사	390	안대(원)	869	유리(원)	859	경
403	사	391	안대(원)	870	유리(원)	860	경
404	사	392	안대(원)	871	유리(원)	861	경
405	사	393	안대(원)	872	유리(원)	862	경
406	사	394	안대(원)	873	유리(원)	863	경
407	사	395	안대(원)	874	유리(원)	864	경
408	사	396	안대(원)	875	유리(원)	865	경
409	사	397	안대(원)	876	유리(원)	866	경
410	사	398	안대(원)	877	유리(원)	867	경
411	사	399	안대(원)	878	유리(원)	868	경
412	사	400	안대(원)	879	유리(원)	869	경
413	사	401	안대(원)	880	유리(원)	870	경
414	사	402	안대(원)	881	유리(원)	871	경
415	사	403	안대(원)	882	유리(원)	872	경
416	사	404	안대(원)	883	유리(원)	873	경
417	사	405	안대(원)	884	유리(원)	874	경
418	사	406	안대(원)	885	유리(원)	875	경
419	사	407	안대(원)	886	유리(원)	876	경
420	사	408	안대(원)	887	유리(원)	877	경
421	사	409	안대(원)	888	유리(원)	878	경
422	사	410	안대(원)	889	유리(원)	879	경
423	사	411	안대(원)	890	유리(원)	880	경
424	사	412	안대(원)	891	유리(원)	881	경
425	사	413	안대(원)	892	유리(원)	882	경
426	사	414	안대(원)	893	유리(원)	883	경
427	사	415	안대(원)	894	유리(원)	884	경
428	사	416	안대(원)	895	유리(원)	885	경
429	사	417	안대(원)	896	유리(원)	886	경
430	사	418	안대(원)	897	유리(원)	887	경
431	사	419	안대(원)	898	유리(원)	888	경
432	사	420	안대(원)	899	유리(원)	889	경
433	사	421	안대(원)	900	유리(원)	890	경
434	사	422	안대(원)	901	유리(원)	891	경
435	사	423	안대(원)	902	유리(원)	892	경
436	사	424	안대(원)	903	유리(원)	893	경
437	사	425	안대(원)	904	유리(원)	894	경
438	사	426	안대(원)	905	유리(원)	895	경
439	사	427	안대(원)	906	유리(원)	896	경
440	사	428	안대(원)	907	유리(원)	897	경
441	사	429	안대(원)	908	유리(원)	898	경
442	사	430	안대(원)	909	유리(원)	899	경
443	사	431	안대(원)	910	유리(원)	900	경
444	사	432	안대(원)	911	유리(원)	901	경
445	사	433	안대(원)	912	유리(원)	902	경
446	사	434	안대(원)	913	유리(원)	903	경
447	사	435	안대(원)	914	유리(원)	904	경
448	사	436	안대(원)	915	유리(원)	905	경
449	사	437	안대(원)	916	유리(원)	906	경
450	사	438	안대(원)	917	유리(원)	907	경
451	사	439	안대(원)	918	유리(원)	908	경
452	사	440	안대(원)	919	유리(원)	909	경
453	사	441	안대(원)	920	유리(원)	910	경
454	사	442	안대(원)	921	유리(원)	911	경
455	사	443	안대(원)	922	유리(원)	912	경
456	사	444	안대(원)	923	유리(원)	913	경
457	사	445	안대(원)	924	유리(원)	914	경
458	사	446	안대(원)	925	유리(원)	915	경
459	사	447	안대(원)	926	유리(원)	916	경
460	사	448	안대(원)	927	유리(원)	917	경
461	사	449	안대(원)	928	유리(원)	918	경
462	사	450	안대(원)	929	유리(원)	919	경
463	사	451	안대(원)	930	유리(원)	920	경
464	사	452	안대(원)	931			

공격이 이어져서 도산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또한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는 중국정부가 조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대미문의 내정간섭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시기에 비록 41%이지만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컸고 간절하였다.

그는 취임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안보를 다짐하였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는 사드 갈등을, 일본과는 종군위안부와 징용자들 배상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국방력을 증진시켜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안보에 있어서는 근심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야말로 허황된 말잔치였으며 일방적 선전이었다.

굴종적인 사드(THAAD) 해결법

문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로 인해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였고 북한 무기체계의 발달 추세를 볼 때 우리 스스로라도 개발하든 구입하든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확보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수단이었다. 그런 국가생존과 관련

文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매우 충격"



지난달 영상까지 공개된 사드 발사대 반입, 왜 지금 진상조사 지시했나

한 결정을 두고 중국이 문제 삼고 나온 것은 미국에 대한 반발이었고 한·미동맹에 대한 불만표시였다. 정상적인 해결방안이라면, 미국과 함께 공조하여 ‘사드는 중국을 위협하는 공격용 무기가 아님’을 강조하며 설득하고,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방위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그런 식의 트집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질을 찾아 강단지게 정면 돌파하여야 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으로 접근했다. 2018년 10월 31일, 양국 외무부간의 합의를 통해 발표된 ‘한·중관계개선합의문’에서는 정상적인 노력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오로지 중국의 기존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언급된 3불(不), 즉 ‘① 사드 추가 배치 중단, ②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③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적인 약속이었고 안보주권 포기선언이나 다름 없었다.

이어서 합의문 표현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한·중 간에 새로운 갈등이 빚어졌다. 중국은 이것을 한국의 약속이라고 했고 우리 정부는 입장표명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약속이든 입장표명이든 ‘3불(不)’의 내용은 애초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다. 다만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target)가 한·미동맹인 것만 공개적으로 확인한 모습이었다.

문 정부가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했던 단기적인 처방은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이었고, 예기치 않게 ‘미국이나? 중국이나?’를 택하라고 하는 외교적 금기(禁忌)구역으로 중국이 성큼 다가오게 만드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이후 대(對)중국 외교는 ‘대통령의 혼밥’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원헬조약, 9.19 군사합의

2017년 5월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워낙 군사한 말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온 국민이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북한은 ‘웃기지 마라’는 식으로 그 해 9월 3일 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문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한 지 불과 석달도 안 지난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말이 되면서 또다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 예정’이라는 문 정부의 말에 현혹되어 방금 전의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고 마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가 오는 줄 착각했다.

이어서 평창 올림픽에 김영남과 김여정이 나타나고 미국 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모습에서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과 북한 간에 큰 진전이 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귀국길에 오른 미 부통령의 표정은 굳어있었고 비장함과 단호함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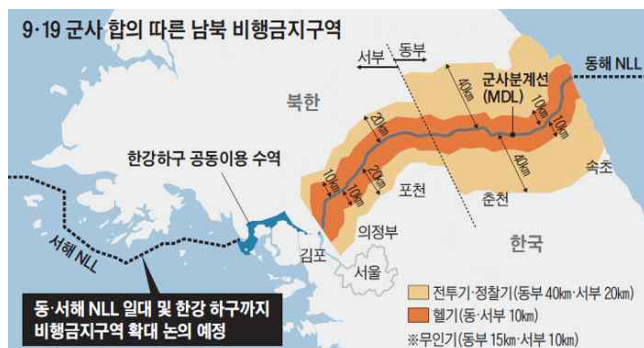
미국과 북한의 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때부터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짝사랑은 노골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의 결정체가 바로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회동에 이어 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3차 정상회담)하고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었다.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판문점 회동 시 김정은에게 USB(청와대는 신경제협력계획을 담은 것이라고 말함)를 넘겨준 행위에 대해 ‘국가원수이며 군 통수권자가 과연 저런 행위를 해도 되는가? 만일 일반 국민이 저런 짓을 하였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비판과 의심이 생기고 있었다.

이 광경은 앞으로 북한의 의도에 따라 문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약점으로 작용될 것이다. 그런 마당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군 당국과 깊은 논의도 거치지 않고 북한에 가서 그들이 늘상 주장해오던 것을 그대로 반영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란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문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히틀러에 속아서 뮌헨협정에 조인하고 귀국한 후 영국 국민들 앞에서 “평화가 왔다”고 자랑하던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을 연상시키는 광경이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양측 1km 내 감시초소(GP) 완전 철수, 서해에 평화구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의 내용이었다. 이는 북한이 각종 남·북회담에서 요구하던 것을 그대로 수렴한 것으로서 마치 무한한 능력을 가진 마법사가 착하게 살아 갈 테니 제발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여우의 간청을 들어주는 모습이었다. 전능한 마법사도 아니면서 일단 인간이 되면 그 여우는 통제할 수 없는 악마가 될 것이라는 앞선 지도자들의 조언을 무시했던 방종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국방주권은 무시되었고 국가 구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주권도 포기되었다. 과반도 안 되는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이렇게 철저히 오용, 남용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는 보기 좋게 히든카드를 보여준 꼴이었고 적들은 과거와 똑 같이 모든 합의를 무시하고 과거와 같은 행태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유·무형 전투력의 약화

우리 정부의 착각과 오류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잘못되었음을 실토

하는 용기 대신에 실상과는 전혀 다른 가정을 마치 현실인양 오도하며 평화가 왔다고 선전하고 군 전력을 약화시켜나가는 오만을 부렸다. 전투력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구성된다. 유형적인 전투력은 병력, 장비, 무기체계 등을 말하고 무형 전투력은 장병의 교육훈련의 강도와 숙달정도, 정신력, 응집력, 군기, 사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정부 주도하에 그 하나하나가 모두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유형전투력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과거 정부에서도 미래지향의 ‘기술 군’, ‘과학 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력 수를 감축하고 부대를 슬림화하며 직업군인을 늘리고 징병 복무기간을 줄이며 부대의 기동성과 적응성을 증가시키려고 계획했었지만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줄이고 부대를 줄이는 일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은 함부로 단시간 내에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가 왔다고 현혹시켜놓고 국민생존과 관련한 정책에서 무서운 도박을 시작해 버렸다. 병력 수를 2020년까지 61만 8천에서 50만명으로 줄이겠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고 6개 사단(6.25전쟁 참전 사단 포함)과 2개 군단 해체를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개 야전군을 없애버렸다. 또한 동원예비군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버림으로써 가용한 예비군마저도 135만명에서 95만명으로 40만명이나 줄었다. 현역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지만 예비군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며 현역 복무기간을 줄임으로서 발생하는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고 현역 수준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를 완전히 도외시 한 것이다.

무형전투력 면에서는 정부 출범 초기, ‘박찬주사건’을 통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정부가 추진하는 군 전투력 약화조치에 대항하여 군내·외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반발의 싹을 제거하고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무도한 행태는 마치 김정은이 장성택을 체포하는 영상을 방영하여 북한주민들을 위협했던 끔찍한 광경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국군장병용 정신교육 교재를 수정하면서 사상전의 핵심인 ‘종북세력’, ‘북한은 주적’ 이란 표현이 삭제되었다. 병영 내에서는 입대 상하 6개월 차이나는 병사를 동기로 묶어 주고 동기생끼리 내무반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분대장이나 고참병사로부터 전수받아야 할 병영생활 노-하우교육이 사라졌다. 군장꾸리는 법부터 군화 끈 매는 법, 세탁, 바느질하는 법 등등, 수많은 야전에서의 생존 비법 전수는 이미 병영 내에서는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구속·별건 수사... 前육군대장 탈탈 털어 나온건 184만원

조선일보 수원=권상은 기자 입력 2018.09.15 03:00

chosun.com

공관병 잡질 논란 박찬주, 뇌물수수 1심 징역 4개월·집류 1년



前 육군대장 박찬주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은 ‘갑질 대장’ 낙인을 받았다. 자식별인 공관병을 부당하게 부러먹고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여론이 돌궂자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그는 작년 9월 현역 대장으로 13년 만에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군 검찰은 판단했다. 제기된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자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오랜 지인인 고철업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760만원 상당의 향유과 집대를 받았다고 했다. 또 부하의 보직 청탁을 들어줘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교육을 초급간부들이 책임지게 되어, 이들 초급간부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의 전투 숙련도는 턱없이 추락하였다. 어물쩍 군의 날카로운 창끝, 칼끝 전투력이 무뎌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계로 보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병영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극상 사건, 병영 내 성 군기 사고, 초급간부 자살 및 자해사건, 부대의 가장 기본 전투력인 사격술 성적, 태권도 유단자 확보율, 정신전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유격과 혹한기훈련에 대한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영 내 휴대폰 사용허가로 인해 사이버도박이 벌어져 1천만 원을 날린 병사도 적발되었다. 지난 2019년 4월 전 부대 휴대폰 시범사용이 허용되고 난 이후 두 달 사이에 137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도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다.

한편,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방한과 국회에서의 연설이었다. 그의 연설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운을 떼는 6.25전쟁에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3만 6천명의 미군 희생자, 이들이 묶어 준 한미동맹, 탄압받는 자들과 자유로운 자들의 경계선이 된 휴전선, 경제발전에서 정치발전, 한강의 기적,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체육, 문학, 예술 등 전쟁이후 70년 역사를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한 명연설이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지적,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눈을 북한에 고정시키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 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연설은 우리가 우려하던 돈키호테의 말이 아니었다.

한국인보다 한국의 역사와 현재 처해진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인을 부끄럽게 만든 명연설이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구성원들, 모든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다른 나라 사람일 것이다.

어리석은 한·미연합연습 중지

연습(exercise)은 육체적(physical) 숙달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training)과는 달리 절차와 과정을 숙달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훈련은 실제 전장이 되는 지·해·공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연습은 회의실이나 상황실 같은 작은 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훈련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하급제대의 부대에 적합한 반면, 연습은 고급제대 지휘관 및 참모가 훈련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하급제대 장병들이 주기적으로 대·소

규모 야외훈련을 하는 것처럼 고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도 주기적인 연습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불확실성과 위험, 모호성이 가득한 전장 환경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성적으로 지휘결심을 하는 절차를 숙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전장 상황은 과거에는 특정 주제를 놓고 참가자들이 논의하는 형태였었다면,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장 환경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만들어 지는 전장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값비싼 컴퓨터 게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습은 부대 기동으로 인해 보는 이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주거나 상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연합연습을 중지하거나 축소하였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고급제대 지휘관과 참모들이 전쟁계획을 연구하고 숙지, 숙달하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의 상층부는 완전히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무능력한 상황이 된다. 유형, 무형의 전투력을 추락시킨 어리석음보다도 더욱 무서운 짓은 전쟁 지도부 마비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키리졸브(Key Resolve), 을지프리티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연습이라는 이름으로 3월과 8월에 실시해 오던 한·미연합연습의 이름을 바꾸기도 한 것은 군사연습의 개념과 목적,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문외한들의 소행이었다. 만일 알고서도 그런 결정을 하였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군 전투력을 약화시키려고 도모한 이적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미군은 10년을 앞서서 훈련과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가오는 이듬해의 훈련과 연습을 업데이트(update)하며 확정해 나간다. 이때에는 그 훈련과 연습에 참가할 부대와 규모를 미리 지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훈련과 연습에 참여하도록 확정된 부대와 개인(예비군)은 그 시기에 맞춰 부대 운용을 조정하고 예비군일 경우는 다니던 회사에 일시 휴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들 예비군들은 지정된 훈련이나 연습에 참가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일단 정해진 연습과 훈련을 갑자기 취소할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할 때보다도 더 많은 손실(각종 계약 파기로 인한 페널티 증가로 인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미 계획된 한·미연합연습을 취소하는 것이 소부대 훈련 취소하는 것처럼 손쉬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였다면 그것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지로부터 오는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손쉬운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뒤집은 것이라면 그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었

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폭 인상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현 정부의 무분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변화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안했을 것이다. 부디 여우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사자를 길들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국군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2018년 한해에 과연 우리 국민 누가 평화의 길을 열었는가? 도대체 그에게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트럼프의 ‘평화’는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하는 것”이었다면 문 대통령의 평화는 대체 무엇인가? 광화문의 수백만 명의 외침과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억압의 굴레 속에서 고통으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을 외면한 채, 김정은과 악수하고 백두산에 올라 감동적인 표정을 짓는 것이 과연 ‘평화’를 향한 길이며 2018년에 그 길을 열었다는 것인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통령보다도 한국을 더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지향하는 쪽집침이 과연 무엇일까? 국민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과연 현 정부가 해 온 국방관련 조치들이 마술적인 일루전(illusion)과 신기루는 아니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군이 헌법상 책무, 법률상 권한, 의무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현 정부의 실책에 의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신성한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국군의 사명에 동의했기에 기꺼이 군에 입대했고 100km 철야행군을 하며 진지점령 훈련을 하였다. 봄가을에는 내가 묻힐 무덤이라는 생각으로 진지공사도 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얼어붙은 땅을 파고 들어가 언 손을 녹이면서 ‘전선야곡’을 읊조리곤 했다. 그런 ‘너와 나’가 있었기에 고향의 부모 형제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우리를 믿고 안보를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던 군이 어느새 소신 없고



권력 지향적이며, 국가관과 정체성이 없는 집단으로 비춰지며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우려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제 우리 군은 국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판단과 실책으로 말미암아 역사 앞에 커다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경계선 상에 서 있다. 스스로의 자성과 정확한 현실 판단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깨우침과 외침이 있기를 기원한다.